

Held by Hope Part 7

Colossians 2:16-23

Jamie Lilley

Mar 17, 2024

희망의 장 일곱번째 : 골로새서 **2:16-23**

제이미 릴리

2024년 3월 17일

Good morning Everyone! What a full Sunday and what a full past couple of weeks we've had here at B4! If you're new here, my name is Jamie Lilley. I'm one of the pastors on our adult ministry team. I'll let you know a little later some of the ministries I get to be a part of, but for now you need to know we are making our way through the book of Colossians. Can we jump right in this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B4**에서 이번 주일과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바쁘게 보냈네요! 제 이름은 제이미 릴리이고 성인 사역팀목사입니다. 나중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Colossians 2:16-23(NIV)

16 Therefore do not let anyone judge you by what you eat or drink, or with regard to a religious festival, a New Moon celebration or a Sabbath day. **17** Thes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18** Do not let anyone who delights in false humility and the worship of angels disqualify you. Such a person also goes into great detail about what they have seen; they are puffed up with idle notions by their unspiritual mind. **19**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from whom the whole body, supported and held together by its ligaments and sinews, grows as God causes it to grow.

골로새서 **2:16-23** (새번역)

16 이런들로는 누구도 너희를 책망하지 못하리니 곧 식물이나 음료, 또는 명절, 새달이나 안식일에 대하여도 아니라. **17** 이것들은 장래에 있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본체는 그리스도니라. **18** 너희를 속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그는 천사를 숭배하며 거짓 겸손을 다투나 그의 사상에는 육신의 지혜에 따라 자기 마음을 푸르게 하면서 빈말로 자랑하느니라. **19** 그는 머리와 연결이 끊어진 자라 머리에 의하여 온 몸이 뼈와 힘줄로 맞붙여져 굳게 조인된다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라나느니라.

20 Since you died with Christ to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is world, why, as though you still belonged to the world, do you submit to its rules: **21**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22** These rules, which have to do with things that are all destined to perish with use, are based on merely human commands and teachings. **23** Such regulations indeed have an appearance of wisdom, with their self-imposed worship, their false humility and their harsh treatment of the body, but they lack any value in restraining sensual indulgence.

20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 세상의 기본 원리에 따르는 신앙과 말리고 어찌하여 세상의 관례를 따르느냐 **21** “이것은 만지지 말라, 저것은 맛보지 말라, 저것은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니 이것들은 사용할 때마다 망하게 되는 규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다. **23** 이런 규례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낸 경배와 거짓 겸손과 육체의 신격한 대우로 너희를 만족시키는데, 그러나 육욕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느니라.

First -

This is a transition season for the Church - capital c early Church. Paul is instructing the church in Colossae on what to do now that Jesus has come, died, and risen. This whole phase of the early church is a season of transition from the old way to the new.

교회에게는 이번이 전환의 시기입니다 - 여기서 교회란 초기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의 이 단계는 옛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의 시기입니다.

They're going straight from Deuteronomy to Colosse: from 10 commandments, laws in Leviticus, from established Jewish culture and tradition of generations. They're trying to decide *with no template* what stays and what goes. 그들은 모세의 율법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의 법률, 세대에 걸쳐 정착된 유대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곧바로 골로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것이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템플릿 없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Without getting too much into the details of these practices, we need to know that religious practices are humanity's best attempt to make space to encounter God. Often we highlight the worst parts of religion that venture into legality and hard lines of who's in and who's out. That's an empty religion. Things don't become religion because they start bad, they start with people wanting to help others and get to know God themselves.

I read the practices Paul's talking about here with a tone. I imagine him saying: "ok friends, these old ways worked while they needed to. We were obedient, we heard God, we made our spiritual life an active aspect of our living being selves. This was good. But (verse 17) these were a shadow of what was to come. What they represented has been realized. Time to move into the new life." 이러한 실천 방법들의 세부사항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종교적 실천이 하나님과의 조우를 위한 인류의 최선의 노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적 라인으로 들어가는 종교의 최악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빈 종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실천 방법들을 읽을 때, 나는 그의 어조를 상상합니다. "알겠어요, 친구들, 이전 방식들은 필요한 동안에는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의 영적 삶을 우리의 삶의 활발한 측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17절) 이것들은 장래에 있을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것들이 실현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Here's the real kicker: Christians were permitted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ose things: eat Kosher food and practice the sabbath SO LONG AS they don't 1- think those things bring them closer to God. why? The realization of Christ means Jesus is the only way to God. 2- they are to not judge other Christians who haven't yet decided to stop those practices. We can get tied to forms, structures, templates. We mistake them for the real thing. 여기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세르 식품을 먹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두 가지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1-** 그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실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 그들은 아직 그러한 실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식, 구조, 템플릿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진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That's what disconnects us from the head.
We turn to templates because they're safe.
Paul says sticking to Christ is enough. That's it.

그것이 우리를 머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템플릿에 의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Second

This transition isn't just a global, communal shift. It's also a call to a change in identity. 이 전환은 전역적이고 공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체성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This is a common theme in the Bible. We see transformed identities all throughout the old and new testament which clues us into something important for our spiritual formation. To me, Paul seems to be naming a pattern of the impact our beliefs have on our identity. Maybe a step further: how our actions reveal our beliefs and shape who we are. 이것은 성서에서 흔한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 변형된 정체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형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게는 바울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lthough Paul is speaking to a specific community in this passage, there is a principle thread we can glean. 비록 바울이 이 구절에서 특정 공동체에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칙적인 선이 있습니다.

Might Paul be exposing the weight of what adhering to former routine does to one's identity in Christ? 바울은 이전의 관습을 고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를까요?

In January our friend Onaje was here leading worship and received a word from the Lord for B4.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a lot since we believe it was a word from the Lord and we want to be faithful to live it out. 1월에 **Onaje**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이끌었고 주께서 **B4**를 위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고자 합니다.

He explained:

The ground that was desert sand, the Lord is taking that and he's turning that into soil. And the seeds from old, the words over this house from old are not forgotten - but there's a new foundation being fortified. What was desert sand is being turned into fertile dirt for those seeds to take root and bear fruit upward. There's a garden season that's moving in this house."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사막 모래였던 땅,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시고, 그것을 흙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씨앗들, 이 집에 대한 예전의 말씨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니다 - 그러나 새로운 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막 모래였던 것이 비옥한 흙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씨앗들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정원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He goes on, but if I'm being honest I get stuck at these initial lines. I'm watching this scene play out in my head and I thought. Hold up. Sand and dirt are not the same. For me, I couldn't move too quickly into the garden season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is transformation means. How does sand turn to soil? 그는 덧붙여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초기 문장에서 막힙니다. 내 머리 속에서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잠깐. 모래와 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않고는 너무 빨리 정원 계절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래가 어떻게 흙으로 변하나요?

Turns out it is possible and it's a process. I'm not going into that today, but the idea we need to clue into is there is transformation. Let us not miss the word: it is the LORD turning sand to soil. Imagine you are the sand. Imagine God sitting with you turning you into something new. A new, fortified foundation.

그래, 그것은 가능하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이디어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래를 흙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모래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앉아 당신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롭고 강화된 기초로.

This is spiritual formation. This is what Paul alludes to. The problem we face with religion is our energy ends up being focused on our doing rather than our being. Spiritual maturity is knowing we cannot change ourselves no matter how much we try. It is the process of becoming interdependent on the love of God, and knowing there's nothing by your own power to produce

transforming love. 이것이 영적 형성입니다. 바울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상호의존적이 되는 과정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변형되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The early church went through this, we know because Paul tells us here in Colossians. And since then, the church continues to go through transformation. How? 초기 교회도 이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는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어떻게요?

At the heart of transformation is embodiment. 변화의 핵심은 구현입니다.

Verse 21: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Ah senses: how we know and engage the spiritual. 21절: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아, 감각: 영적인 것을 알고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This is embodiment: making true in the physical what is potential in the spiritual. 이것이 구현입니다: 영적으로 가능한 것을 물리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Because our senses are destined to perish with use, we have to recognize the "therefore" at the beginning of the passage. 우리의 감각은 사용 중에 소멸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의 시작 부분의 "그러므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It's connecting the audience to the victory of Jesus on the Cross. Because of what Jesus did, it would be silly to put yourself back under the control of the powers Christ had defeated on the Cross. I see Paul saying the embodiment of the old law doesn't look like the embodiment of the New Covenant. Or- God is moving in a new way.

이것은 청중을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승리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권세 아래로 다시 자신을 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예전의 법의 구현이 새 언약의 구현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o enter into a garden season, we must be willing to submit to the personal transformation and healing the Lord needs to do in each of us as we go from sand to soil. 정원 시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모래에서 흙이 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개인적인 변화와 치유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Can we commit to this transformation process in order that we might be soil ready to cultivate seeds that will eventually grow into vines abiding in the branch and yielding good fruit? Can we submit to grow as God calls us to grow? 우리는 우리가 끝내 가지와 열매를 맺는 덩굴로 자리 잡을 씨앗들을 기르기 위해 준비된 흙이 되기 위해 이 변화 과정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부르시는 대로 성장하기 위해 복종할 수 있을까요? I want to take some time to share with you some ways that we at B4 are giving our best attempt at creating space for relationship with Jesus.

I want to tell you some stories of people saying yes to Jesus in different ways with the hope that you can find yourself in one of their stories and be inspired to do something about it. 저희 **B4**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에게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 중 한 가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Alpha: this is the space to come and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your questions and doubts. If you're feeling that rise in you like "ee. I've ventured into the routine category" come to Alpha. I would love to see this round filled with people holding their beliefs with open hands. I'd love this round to be a serious deep dive into the beliefs you've held for years and ask the Lord what you need to learn and unlearn. I practice this all the time. I said yes to Jesus when I was in the third grade. I've been following Him for 20 years, and I will tell you it's the way my heart has stayed alive. Many people in Alpha have this hands open posture.

We end Alpha with a Celebration Dinner where I ask participants to share their experiences.

Here are a few: 알파: 이곳은 질문과 의심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음. 나는 일상적인 범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면, 알파에 참여해보세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손을 여린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여러 해동안 가지고 온 신념에 깊이 파고들어, 주님께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실천합니다. 저는 **3**학년 때 예수님께 '예'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따랐고,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알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손을 여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축하 만찬으로 마감됩니다. 여기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 After the first gathering I felt so out of place. I couldn't see how I fit in at my table. But, as the weeks passed, that feeling changed. I was building new friendships - a family if you will. In fact, I was building relationships not only with my table but with my husband's table too. I was being blessed with twice as much. Not to mention we got dinner AND dessert. If you know me personally then you know my past has been a hard one of loss and sadness. I struggle with believing in my self worth. When the other people at my table shared their faith with me, I knew I was right where God needed me to be. But I have to say watching my husband put his faith in God's hands and ask his table leaders to pray with him is by far the biggest takeaway for me. I would encourage anyone to take the leap of faith and try Alpha with someone you love because both of you will be encouraged and grow. 처음 만나는 순간, 나는 너무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테이블에 어떻게 맞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 기분은 변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우정을 쌓고 있었고 - 단단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 테이블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테이블과도 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배로 축복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식사와 디저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과거가 어렵고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치있는지를 믿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의 테이블 리더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믿음의 도약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알파를 시도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격려를 받고 성장할 것입니다.
- Going through Alpha helped me grow in my faith by showing me that I don't have to be the perfect Christian. I learned that God wants me to show up every day just as I am. He wants to hear my sloppy prayers. He wants me to spend time in His word every day, even if it's just for five minutes. He wants me to come to Him with my struggles and questions. He also wants me to come to Him when life is going great and to give Him praise. I know God wants a relationship with me. And if you have ever been in a relationship whether with a partner, a friend, a parent or a child you know relationships aren't perfect, but they are built by showing up and being exactly who you are and trying

every day to be that much better. They are built by communicating all the good and bad of life. They are built by showing one another love. Love is what God has for us all, beautiful and unconditional love.

알파를 진행하면서 내가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제 자신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제 마구잡이 기도를 듣고 싶어합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에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제 어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이 좋을 때도 그분께 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파트너, 친구,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었다면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나타나고 정확히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며 매일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축됩니다. 그것들은 삶의 좋고 나쁜 점을 모두 소통함으로써 구축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구축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진 아름답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 I have grown up Christian (although in and out of churches) and have always believed that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mankind*. For *us all*.... Never in a million years did it dawn on me that He would have died for *just me*. That realization enabled me to then grasp the idea that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is possible and I came to understand what's meant by that more. And since the group, I have done (not daily) but more consistent devotional reading as well as REALLY stepping up my praying game!!! Not my gift, but I can go about 90 seconds now lol. Weirdest thing happened to me—I was “conversing” the other eve, and then the words “I love you” slipped out and I was temporarily horrified like I had overstepped! I am kind of thinking that’s a good thing tho?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가끔은 교회에 들렀지만), 항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 왔습니다 -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나에게 개인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룹 이후로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더 일관된 경건한 독서를 하고, 기도 생활을 정말로 향상시켰습니다!!! 제 재능은 아니지만 이제는 90초 정도 버틸 수 있어요 ㅋㅋ.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 나는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 "사랑해"라는 말이 떨어졌고,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싶어

일시적으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We had one man completely delivered, I mean delivered in the pentecostal sense, from alcoholism. If you know, if your body is addicted to alcohol, you can't stop cold turkey. You actually need to have a slow come off because of the effects it has on your system. This man stopped cold turkey with no side effects. He came back week after week proclaiming 7 days sober, 14 days sober, 21 days sober!

우리 중 하나의 남성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그는 정신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 급격히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천천히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어떤 부작용도 없이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는 주마다 돌아와서 **7일, 14일, 21일** 동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 Another glad shared her story that she had lost a baby twenty years ago and has not been able to hold one since. Through the course of Alpha, the Lord began a healing work in that deep tender part of her. She held a baby for the first time in twenty years.

또 다른 참가자는 **20년** 전에 아기를 잃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 아기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 과정을 통해 주님은 그녀의 깊고 연약한 부분에서 치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 And one lady shared at the celebration dinner how she was incredibly shy and introverted. Her standing on stage was a testimony to the work of the Spirit in her and the community she built. 한 여성이 축하 만찬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부끄러웠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서 있는 것은 그녀와 그녀가 형성한 공동체에 대한 영성의 작업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These stories are of big and small things that the Lord is doing in the lives around you because these people allowed themselves to ask the tough questions and examine their beliefs.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신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I'm hoping you hear these stories and are asking: "what would my life would look like if I went

all in on Jesus?" Baptism is the ritual we join in as followers of Jesus symboliz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Our own story of death to life. It is our physic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an inward reality: I am saved, cleansed, forgiven, commissioned. At B4, we meet with each person before they get baptized so they can share their testimony and have spiritual direction in the decision. Over the years I've gotten to meet with so many people. Here are a couple of my favorite baptism stories: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가 예수를 온힘을 다해 따르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보일까?"라고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인 현실의 신체적 참여와 대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정화되었고, 사해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B4**에서는 침례를 받기 전에 각 개인과 만나서 그들의 증거를 나누고 그 결정에 대한 영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봤습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침례 이야기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 A man in our congregation just over the age of 80 met with me and shared his story of sort of knowing Jesus as a kid, then lived 70 years not responding to Jesus. He asked me if he was too old to get baptized and my heart leap - What?! Never! We got to baptize him that next round. 우리 교회의 **80**세가 넘는 나이의 한 남성이 저와 만나 자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예수를 어느 정도 알았다가, 그 후로 **70**년 동안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기에 너무 늦었는지 물었고, 내 마음이 뛰었습니다 - 뭐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다음 라운드에 그를 침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I baptized one of my Alpha leaders over the summer. I met her and her fiance(now husband) at their community pool. While we were in the water celebrating her baptism he said "I feel like I'm supposed to right now also". So we talked about it and felt it was the Spirit God speaking, so I baptized him too!

여름에 알파 리더 중 한 명을 침례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 (현재 남편)를 그들의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축하하면서 물 속에 있을 때, 그의 말로는 "지금 제가 할 일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도 그를 침례했습니다!

- We held summer baptisms in the courtyard last summer. When one of the elementary girls was in the water she looked scared. Pastor Jenna and I asked her if everything was ok. I always tell people they can decide it's not the right time even if it's in the water. She reassured us no, it was that she fel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verwhelming her. It was so pure and exciting getting to be in that space. 작년 여름 우리는 마당에서 여름 침례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소녀가 물 속에 있을 때 겁이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나 목사와 저는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물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확신시켰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순수하고 흥미로웠습니다.

I wonder if you've listened intently to the Lord recently? What has God been speaking to you? If you haven't taken the step of baptism, do you sense that invitation from the Lord today? If you're not sure, let's talk about it! 요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침례의 단계를 밟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초대를 받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확신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Eas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we are expecting a ton of new people and new families! This is our opportunity to team up in hospitality and generosity as we welcome people into this house. Easter Serve is how to live this out. Joining the team on Easter is an invitation to everyone, but specifically I want to speak to those of you in the house who have had a hard time connecting. Joining a team is the best way to get connected at B4. We don't see volunteering as just filling roles on a Sunday. Being a part of the work represents your commitment to the mission of Jesus in your own life and in the lives you're serving. To help you decide if this is your action step for today I want you to think about when you said yes to Jesus and how your life has transformed since. What is YOUR Good News? Does your life spill out the love of God, and could this be your place to act in love from love to love?

부활절이 막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가정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집으로 사람들을 환영할 때 환대와 관용으로 팀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부활절 서비스를 통해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활절에 팀에 합류하는 것은 모두에게 초대이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집에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에 합류하는 것은 **B4**에서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그저 일요일에 역할을 채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사명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나타내고, 당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 단계가 이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예를 들었을 때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퍼뜨리는가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부터의 사랑에서 사랑에게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It's possible you don't resonate with any of these things - or maybe you're feeling like they're coming up too soon. In a few weeks we are opening registration for k-5th Day Camp. Before we do that, we need to build the team! Specifically we need 100 volunteers to serve in various roles. They didn't super want me to say this, but because of ratios and good stewardship, the amount of kids spots is dependent on the amount of volunteers we have. I served last year as a small group leader for 3rd graders and it was a BLAST. My co-leader was one of our awesome high schoolers who I got to know and love dearly. We will talk more about this in the coming weeks, but there is a table in the commons to sign-up or ask more questions.

이러한 일들과 관련이 없거나 아직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는 **k-5**학년 대상의 데이 캠프 등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팀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말하길 원하지 않았지만, 비율과 관리 때문에, 어린이 자리 수는 우리가 가진 자원봉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나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로 참여했는데, 그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공동 리더는 저희 중 하나의 멋진 고등학생이었고, 나는 그를 정말로 알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몇 주 동안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추가로 등록하거나 더 많은 질문을 하려면 공동체에 있는 테이블로 가시기 바랍니다. I tell you these stories because I want us to start seeing God all around us. The story I tell, my interpretation of a passage comes from my particular context and all the things I bring. Let's not get stuck thinking whoever up here has all the answers. That's religion. But as you hear these stories of transformation in the lives of the people around you do you hear love? I purposefully didn't give you names because I want us to start to wonder what the stories of love are all around us, and what the story of love is benign written in your own life.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 성경 구절에 대한 내 해석은

내 특정 맥락과 내가 가져오는 모든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누구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을 듣나요? 나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주변의 사랑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삶에 쓰여진 사랑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If one of the things I just mentioned raises some negativity in you please don't do it. But please take time to listen to the Lord and be open to what the answer might be.

만약 내가 방금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답이 무엇일지 열려 있을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W're going to have the band play a song while you take this time to respond. We usually invite you to worship or pray - engage some sort of inner work in response to the message. Today I'd like for you to get out your phones if you have them, and sign-up for one of these things. We're

going to have QR codes on the screen with links to each of the options (and you can choose multiple). Let's take a physical step in response to the invitation from the Lord today. Jesus calls us out of religion and into relationship. Jesus has set for you a full life of participation with Him and those around you.

밴드가 곡을 연주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종류의 내적인 작업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이 중 하나에 등록하실 것을 원합니다. 화면에 각 옵션에 대한 링크가 있는 **QR** 코드가 있을 것입니다(여러분은 여러 개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대에 대한 물리적인 단계를 취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빼내어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실 풍부한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RESPONSE TIME WITH QR CODES ON SCREEN

Benediction:

May we be people who submit to the transforming love of God, who will turn sand into soil.
May we be people who enter into this new garden season with anticipation and imagination as we prepare for what new seeds the Lord wants to plant.

축복:

하나님의 변화하는 사랑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모래를 흙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심고자 하는 새로운 씨앗에 대비하며 기대와 상상으로
이 새로운 정원 계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